

수완지구 롯데마트 ‘뜨거운 감자’

슈퍼협 “대형마트 넘쳐 상권 죽는다”… 사업조정 신청

롯데측 “나대지에 신규 조성… 동네상권 침해와 별개”

‘동네 상권 침해다, 아니다.’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이던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에 대한 상권 침해 논란이 뜨겁다. 지역중소상인들은 이 지역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광산구의 기존 상권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롯데쇼핑 측은 새로 들어선 주거지에 신규 상권을 조성한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논란은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3일 수완지구 롯데마트를 상대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롯데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비롯된 사업조정 신청 바람이 대형마트까지 확산한 것이다.

SSM이 아닌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보니 롯데마트에 대한 사업조정 결과에 전국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롯데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년여간의 준비했는데 조정결과에 따라 다음달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때문에 롯데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난 2006년 토지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로 분양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점률을 추진해 왔는데, 기존 상권 침해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택지 개발이 진행 중인데다 상권형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기

존 상권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소상권의 시설로 신규 상권조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롯데마트 홍보팀 나근태 과장은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나대지였던 곳에 롯데마트가 입점하는 것으로 기존의 골목상권을 침범할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수완지구 일대 2km 이내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가 영업을 하고 롯데마트와 직선거리 100m 이내에 롯데슈퍼까지 생기는 것은 대기업의 무차별적 횡포라고 맞서고 있다.

조합 측은 33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광산구에 대형마트 3곳, SSM 2곳,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 체인 4곳까지 대형 유통점 9곳이 영업중인데, 여기에 수완지구 롯데마트가 문을 열게 되면 광산구 소재 시장 상인을 비롯해 신창, 수완, 하남 일대 소상공인들

이 폐업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김경남 상무이사는 “롯데마트 개점 시기를 적어도 수완지구 입주율이 80%를 넘어섰을 때로 미뤄 인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당당국의 적절한 사업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조정을 맡게 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대로 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시일 내에 롯데마트의 동네 상권 침해 여부를 가린다는 계획이다. 수완지구 롯데마트의 매장은 1만2천 892.6㎡ 규모로 사업조정 권한이 중소기업청에 있다.

한편, 수완지구 롯데마트는 롯데아울렛과 함께 오는 9월 24일 동시에 오픈 계획이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오는 9월 개점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롯데아울렛.

소상공인 뿐났다

오늘 전국 연합회 출범

부동자금 13조 ‘고수익’ 찾아 대이동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단체들이 연합회를 결성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의류판매업조합 등 22개의 소상공인단체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칭)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발기인 대표인 슈퍼마켓연합회 김경배 회장은 “200만 소상공인 회원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연합회 출범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1개월 만에 단기 대기성 자금 13조 원이 부동산, 주식 등 고수익의 위험자산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이동했다.

5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시중은행 등에 따르면 단기자금 운용처인 멤버리케프트(MMF) 설정 잔액은 지난달 말 101조 5천 291억원으로 전월말보다 2조 4천 671억원이 줄었다. 최고치였던 지난 3월 중순의 126조 6천 242억원 보다는 4개월여 만에 25조 951억원이 감소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외환은행·농협 등 7개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163조 9천 83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0조 2천

260억원이 줄었다. 요구불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대표적인 단기 부동자금이다.

이들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지난 6월 8조 6천 335억원 증가했지만 지난 달 급감하면서 1월 말 155조 4천 351억원 이후 반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요구불 예금과 MMF 등 단기 상품에서 이같은 자금은 금리가 상승중인 정기예금으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증권과 부동산 시장 등 고수익의 위험자산으로도 유입된 것으로 관측된다.

개인 저축률은 주식투자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은 지난달 말 현재 14조 3천 861억원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여윳돈이 없나

개인 저축률 4%대 뚝

지난 2006~2008년 개인 저축률이 평균 4%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저축률의 국제비교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08년 개인 저축률은 평균 4.8%로 20년 전인 1986~1990년의 16.9%에 비해 12.1%포인트 떨어졌다.

개인 저축률은 가계의 저축액을 국

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눠 계산한

다. 개인 저축률은 ▲1991~1995년 16.3% ▲1996~2000년 14.2% ▲2001~2005년 6.0% 등으로 계속 내려왔다.

/연합뉴스

아파트 부동산 경매시장 ‘활기’

지난달 광주지역 경매건수 156건… 126% 증가

전남도 351건 ‘껑충’… 낙찰률은 전년비 하락

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37.4%)보다 크게 상승했고 낙찰률도 전년 동기(80.5%)보다 오른 86.9%로 나타났다. 평균 응찰자 수도 5.6명으로 지난해(2.6명)보다 많았다.

지지옥션 측은 “전남지역 아파트 경매 건수 증가는 광양시 광양읍 협성아파트 건물 1개동(136건)이 통째로 경매에 나왔기 때문”이라며 “경매 물건이 늘었는데도 낙찰률과 평균 응찰자 수가 전년도 동기보다 높아진 것은 아파트 경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업 10곳 중 9곳 “3년간 지방에 투자 안한다”

대한상의 350여 업체 조사

■ 향후 3년간 지방 투자계획 및 실행여부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향후 3년간 지방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거나 계획된 투자를 실시하는데 유보적인 입장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일 전국 350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지방투자 저해요인과 개선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지방에 투자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6%가 ‘투자계획이 없고 관심도 없다’고 답했다. 21.1%는 계획은 있으나 실행 여부가 미정이다고 답했으며, 지방 투자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6.3%에 불과했다. 10곳 중 9곳은 지방투자 계획이 없거나 더더라도 유보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의는 아직 국내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등 대외적 요인 또한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들이 지방 투자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방에 대한 투자 여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기업들도 많았다. 응답 기업들의 64.9%는 ‘지방의 투자 여건이 전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아직 미흡하다’는 응답도 30.9%를 차지했다.

이들은 지방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지방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 확대’(40.4%),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확대’(16.2%), ‘기업투자 관련 규제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15.2%)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의 관계자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취약한 지방으로 투자가 확대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家 3세 박철완 부장

그룹 전략경영본부 전보

금호가(家) 3세인 박철완(31·사진) 아시아나항공 전략팀 부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박 부장은 고 박인천 창업주의 2남인 고 박정구 전 회장의 아들로, 2003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코스피지수	1,559.47 (-6.90)
코스닥지수	508.99 (+0.27)
금리 (국고채 3년)	4.43% (+0.08)
원·달러 환율	1,224.30원 (+6.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전략경영본부 경영 관리부문 상부로 있는 박 삼구 명예회장의 아들 박세창(34) 상무와 한 부서에서 일하게 됐다.

박 부장은 고 박인천 창업주의 2남인 고 박정구 전 회장의 아들로, 2003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